

2024년 충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급 조사 보고서

요약본

2024. 12

통계 이용 및 해석상의 유의사항

- 본 보고서는 충남지역 사업체의 인력 및 훈련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도 충남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공급조사』분석결과를 수록한 보고서임
- 2024년도 충남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기초 수요조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수행한 기초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함
- 조사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52개 산업 중분류이며 2023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명부 중에서 해당 지역 내의 상시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기초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조사에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모수추정한 결과이므로,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인력의 수의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이며, 비율 등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함
- 각 자료별 출처 및 분석 기간이 상이하므로 해석 시 반드시 출처를 참고하여 해석하여야 함

PART

요약

요약문

요약문

1. 연구개요 및 목적

- 2024년 충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급조사 분석으로, 충남지역의 산업 및 인력현황 파악을 통해 교육훈련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하여 훈련 공급을 계획하고,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기초자료,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됨
-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산업과 경제현황, 심층조사 결과, 인력·훈련 수급 기초조사 결과분석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최종적으로 항목별 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교육 훈련 공급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함
 - 분석 내용 중 기초조사에 대한 모집단 설정, 표본 설계, 조사 내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지침에 따라 작성됨

[표 1] 2024년 충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급조사 조사 방법

구 분	조사 방법		주 자료원
산업 및 경제 현황	데스크리서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등 산업 및 시장자료 분석 - 고용통계 DB자료 - 충남 정책자료 등
심층 조사 결과	전화, FAX, 방문조사, 좌담회(FGI)		모집단 2023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DB
			표본설계 업종 및 기업규모에 따른 표본배분
			표본 수 총 972개사
			모수 추정 모집단 사업체 수와 표본 사업체 수 비율로 가중치를 산출하여 총수 추정
			좌담회 지역특화 6대 산업별 사업주, 근로자, 전문가 (총 18개 그룹)
인력 및 훈련 수급 기초조사 결과분석	수요조사	개별면접조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료 활용 및 분석 - 총 1,226 표본
	공급분석	데스크리서치 및 2차 통계자료 분석	- '21~'23년 HRD-NET 훈련공급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수급분석	수요 및 공급분석 결과	- 수요조사 결과 및 공급분석 결과 활용

2. 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 분석

- 충남의 경제 및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전후 침체기를 지나, 2022년 이후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시장 또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충남의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33.5조 원으로 전국 대비 6.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전국보다 0.4%p 높은 수준임
 - 한편, 지역 내 총부가가치 비중으로는 2022년 기준 제조업의 비중이 전국 (28.3%) 대비 충남(53.1%)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2018년 대비 전국은 0.6%p 감소한 반면 충남은 0.2%p 증가하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더 강화됨
- 또한 충남지역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2022년 기준 전국의 약 4.3%대로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이 전국(16.9%) 대비 충남(28.9%)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제조업의 사업체 수는 약 3.6% 증가함에 반해, 종사자 수는 0.9% 감소하며 노동력 중심의 제조업에서 디지털화 등 기술 중심의 제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충남지역의 NOHI 지수를 활용한 산업집중도에 따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2.7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으로 나타나, 지역특화 산업 중 모빌리티 산업과 디스플레이·반도체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서비스업 중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0.67로 가장 많은 종사자를 보유함
 - 권역별로 살펴보면 북부권(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에는 전기장비 제조업 및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높게 나타나며, 나머지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은 서비스업(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등) 중심의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1인당 지역 내 총소득은 2022년 기준 48.0백만 원으로 전국 3위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나, 총생산 대비 지역 내 총소득 비중은 75.0%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

- 이는 충남 지역경제가 LCD,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와 같은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집약적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충남지역의 근로자 상당수가 수도권, 대전, 세종 등의 광역 경제권에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서 소비하여 지역 내 생산액이 현재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음
- 한편, 충남지역 내 고용률은 2023년 기준 약 64.8% 수준으로 전국 평균 고용률(62.6%)보다 높은 편으로 타 지역 대비 전반적인 고용시장은 양호한 상태로 나타남
 - 한편,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4.7%로 전년 대비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충남지역의 2023년 채용계획인원은 27,056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4,255명)하였고, 부족률(3.2%) 또한 전년(3.9%) 대비 감소하여 고용시장의 인원 충원계획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23년 전국 부족률은 2.9%로 전국 대비 여전히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주민등록인구는 213.0만 명('2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1,281천 명 수준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64.3%) 대비 충남(66.5%)이 더 높은 편이나 생산가능인구 중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 유출이 많은 지리적 한계 등으로 신규 인력 양성 및 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충남지역의 노동시장 및 고용현황은 전국과 비교하여 어려운 상황이며 지역 내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외 인력 유출과 관련하여 노동환경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충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강점을 두고 있고, 주요 산업들을 연계 및 융복합한 신규 시장,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3. 인력 및 교육훈련 심층 조사 결과

- 심층조사는 디스플레이·반도체산업, 모빌리티, 스마트휴먼바이오산업, 이차전지·첨단 화학소재산업, 첨단금속소재·철강산업, 석탄에너지산업의 충남의 6대 산업을 대상으로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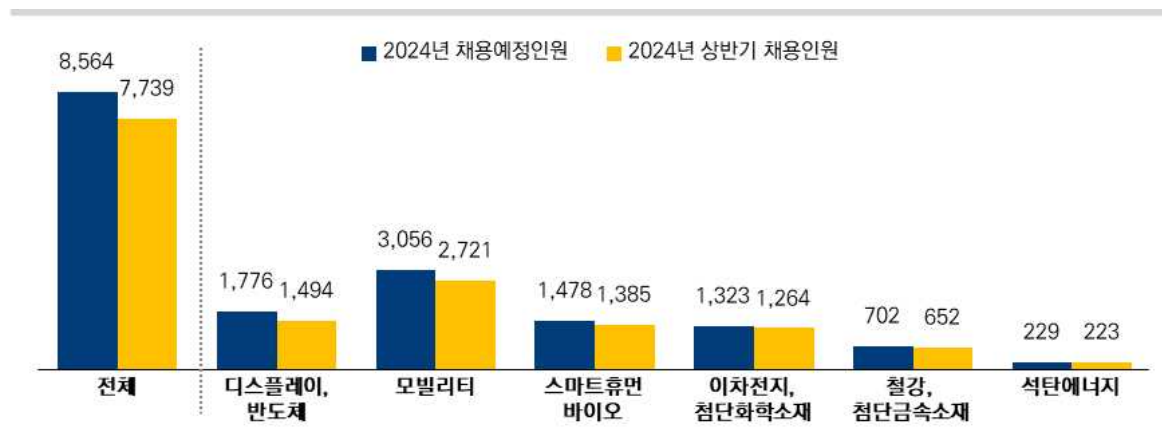
[표 2] 심층 조사- 완료현황

구 분	완료개수				
	계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디스플레이·반도체산업	220	76	103	23	18
모빌리티 산업	303	69	138	57	39
스마트휴먼 바이오산업	123	51	46	22	4
이차전지·첨단 화학소재 산업	148	46	72	22	8
첨단 금속소재·철강 산업	155	46	84	13	12
석탄에너지산업	23	4	8	5	6
합계	972	292	451	142	87

- 6대 지역특화산업 중 모빌리티 산업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근로자 또한 모빌리티 산업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전체 종사자의 17.1%가 외국인 근로자로 나타남
- 2024년 채용예정인원은 8,56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모빌리티 산업의 채용 예정인원이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반도체, 스마트휴먼바이오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2024년도 채용예정인원 및 실제 채용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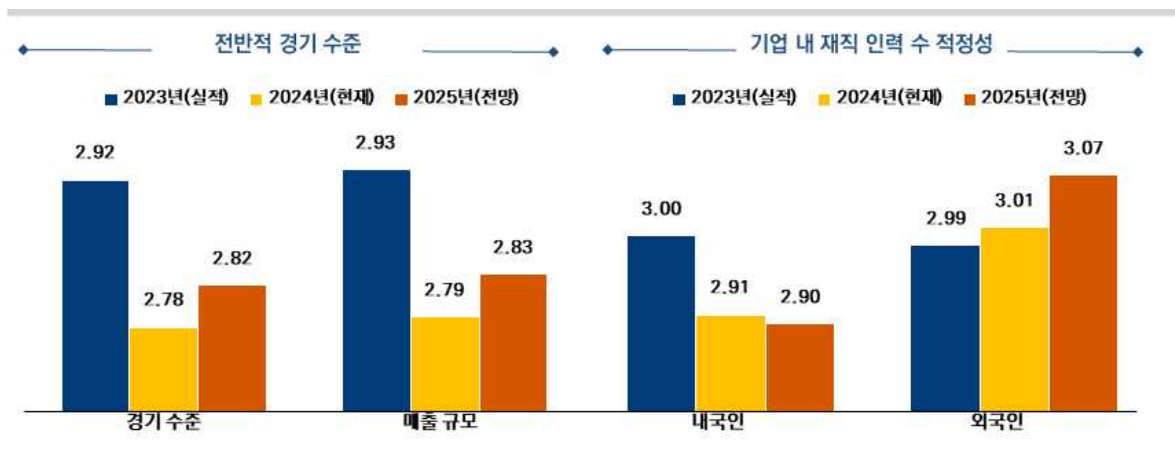
(단위 : 점(5점 평균))



- 2024년 인력 충원률을 살펴보면, 석탄에너지산업이 충원률 97.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의 충원률은 84.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향후 직원 채용 수요에 따르면, 모빌리티 산업에서 내국인에 대한 채용 수요가 1,51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외국인 채용 계획 또한 20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더불어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대체로 외국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모빌리티 산업에서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외국인 최대 채용희망인원은 총 1,101명으로 나타나 인력 수급의 시급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짐
 - 모빌리티 산업의 내국인 인력 적정성 전망(2025년)은 전체 산업 평균(2.90점) 대비 2.90점으로 유사한 수준이며, 외국인 인력 적정성 전망(2025년)은 전체 산업 평균(3.07점) 대비 3.16점으로 보다 낙관적인 상황임
 - 이는 즉, 모빌리티 산업의 발달 및 성장에 따라 인력수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그림 2] 산업 전반적 경기 수준

(단위 : 점(5점 평균))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지자체 지원의 필요성은 모빌리티 산업이 78.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지원 정책 분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체 내 안정적 근무를 위한 방안 마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6대 지역특화산업 분석 요약 (1)

구 분		디스플레이·반도체	모빌리티	스마트휴먼바이오
사례수		530개사	1,005개사	374개사
계층별 현황	총 종사자 수	24,691명	43,643명	16,309명
	여성	3,801명	7,805명	6,449명
	외국인	1,056명	7,456명	1,507명
	중장년	3,728명	9,138명	4,997명
2024년 채용 예정인원		1,776명	3,056명	1,478명
2024년 상반기 채용 현황		1,494명	2,721명	1,385명
2025년 향후 직원 채용 수요	사무관리직	92명	205명	100명
	연구개발직	64명	27명	17명
	생산기능직	621명	1,270명	390명
	영업판매직	24명	9명	30명
	기타	7명	0명	15명
2025년 외국인 채용계획		93명	200명	90명
2025년 외국인 최대 채용희망인원		220명	1,101명	21명
신입 교육이 시급한 직무	1순위	생산기능직	생산기능직	생산기능직
	2순위	연구개발직	사무관리직	사무관리직
	3순위	사무관리직	연구개발직	연구개발직
재직자 교육이 시급한 직무	1순위	생산기능직	생산기능직	생산기능직
	2순위	기타	기타	사무관리직
	3순위	연구개발직	사무관리직	연구개발직
전반적 경기수준	실적(2023)	2.89점	2.90점	2.98점
	현재(2024)	2.80점	2.80점	2.77점
	전망(2025)	2.88점	2.85점	2.78점
내국인 인력 적정성	실적(2023)	2.92점	2.99점	3.07점
	현재(2024)	2.72점	2.93점	2.94점
	전망(2025)	2.81점	2.90점	2.91점
외국인 인력 적정성	실적(2023)	2.83점	3.07점	2.92점
	현재(2024)	2.88점	3.09점	2.88점
	전망(2025)	2.95점	3.16점	2.88점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애로사항 1+2+3순위		이직이 잦음(48.4%)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 부재(44.9%)	이직이 잦음(64.4%)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지자체 지원 필요성(필요함+매우 필요함)		59.8%	78.5%	77.6%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정책 분야 (1+2+3순위)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간소화 등 법적 제도 완화(42.7%)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체 내 안정적 근무를 위한 방안 마련(44.3%)	외국인 노동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54.9%)
중장년 근로자 지원 필요성 (필요함+매우 필요함)		84.9%	84.4%	90.1%
중장년 근로자 채용 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정책 분야		재정지원(62.6%)	재정지원(59.9%)	재정지원(63.9%)
최근 1년간 사업 관련 가장 큰 이슈 (1+2+3순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정한 원자재 공급(69.5%)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정한 원자재 공급(72.3%)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정한 원자재 공급(80.2%)
인력 양성 위한 효과적인 방식 (1+2+3순위)		기업 내 재직자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71.8%)	기업 내 재직자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66.7%)	기업 내 재직자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69.1%)
도내 우수 인재 확보 방안 (1+2+3순위)		지역 내 취업 시 고용장려금 지원(75.9%)	지역 내 취업 시 고용장려금 지원(74.8%)	지역 내 취업 고용장려금 지원(76.6%)

[표 4] 6대 지역특화산업 분석 요약 (2)

구 분		이차전자·첨단화학소재	철강·첨단금속소재	석탄화력발전에너지
사례수		347개사	298개사	88개사
계층별 현황	총 종사자 수	14,125명	8,932명	5,184명
	여성	2,402명	1,166명	601명
	외국인	1,337명	1,338명	13명
	중장년	3,346명	2,291명	1,256명
2024년 채용 예정인원		1,323명	702명	229명
2024년 상반기 채용 현황		1,264명	652명	223명
2025년 향후 직원 채용 수요	사무관리직	28명	48명	37명
	연구개발직	4명	5명	10명
	생산기능직	309명	327명	53명
	영업판매직	10명	2명	6명
	기타	0명	0명	0명
2025년 외국인 채용계획		24명	47명	0명
2025년 외국인 최대 채용희망인원		220명	229명	3명
신입 교육이 시급한 직무	1순위	생산기능직	생산기능직	생산기능직
	2순위	연구개발직	사무관리직	기타
	3순위	사무관리직	연구개발직/영업판매직	사무관리직
재직자 교육이 시급한 직무	1순위	생산기능직	생산기능직	생산기능직
	2순위	기타	기타	사무관리직
	3순위	사무관리직	사무관리직	영업판매직
전반적 경기동향	실적(2023)	2.93점	2.85점	3.09점
	현재(2024)	2.75점	2.60점	3.05점
	전망(2025)	2.82점	2.61점	3.18점
내국인 인력 적정동향	실적(2023)	3.03점	2.98점	3.28점
	현재(2024)	2.97점	2.93점	3.32점
	전망(2025)	2.95점	2.90점	3.16점
외국인 인력 적정동향	실적(2023)	3.00점	3.01점	1.45점
	현재(2024)	2.97점	3.06점	1.45점
	전망(2025)	3.06점	3.07점	1.90점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애로사항 1+2+3순위		외국인 노동자 쿼터(고용한도)가 적음(44.5%)	비자발급 및 법적 제도 문제(60.6%)	이직이 잦음(100.0%) *3개사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지자체 지원 필요성(필요함+매우 필요함)		69.2%	66.2%	18.9%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정책 분야 (1+2+3순위)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간소화 등 법적 제도 완화(44.6%)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간소화 등 법적 제도 완화(55.1%)	외국인 노동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84.3%)
중장년 근로자 지원 필요성 (필요함+매우 필요함)		83.3%	89.9%	34.2%
중장년 근로자 채용 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정책 분야		재정지원(70.7%)	재정지원(68.7%)	재정지원(66.4%)
최근 1년간 사업 관련 가장 큰 이슈 (1+2+3순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정한 원자재 공급(81.7%)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정한 원자재 공급(76.5%)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정한 원자재 공급(42.1%)
인력 양성 위한 효과적인 방식 (1+2+3순위)		지역 내 훈련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74.9%)	지역 내 훈련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73.5%)	-
도내 우수 인재 확보 방안 (1+2+3순위)		지역 내 취업 시 고용장려금 지원(83.8%)	지역 내 취업 시 고용장려금 지원(77.1%)	-

4. 인력 및 훈련 수급 조사 결과 분석

- 충남의 52개 업종에 대한 사업체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 전체 종사자 수는 총 461,16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년 미만 신입인력 비중은 19.8%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4.7%p 하락하였으며, 퇴직인력은 93,681명으로 그중 52.6%가 근속 1년 미만 신입 인력으로 나타남
- 한편, 충남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제조업을 중심으로는 전체 종사자의 39.1%가 제조업 종사자로, 신입 인력 비중은 14.0%로 충남 전체 산업(19.8%) 대비 낮은 편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40.5%를 차지하고 있음
- 근속 1년 미만 인력의 퇴직 비중은 서비스업(55.4%)이 제조업(48.8%)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

[표 5] 지역 특화산업별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종사자 수	종사자 중 근속 1년 미만자	전체 여성 종사자 수	외국인
전체 산업 기준		491,167	97,260	171,577	22,161
지역 특화산업 전체		156,523	21,908	25,641	8,968
지역 특화 산업	디스플레이·반도체	31,207	4,549	5,068	563
	모빌리티	48,642	3,621	5,049	2,975
	스마트휴먼바이오	19,955	5,313	8,968	2,429
	이차전지·첨단화학소재	26,203	6,846	4,274	1,620
	철강·첨단금속소재	25,137	847	1,849	1,380
	석탄에너지	5,379	733	435	0

- 충남의 구인구직 현황으로는 전체 구인 인력 대비 실제 인력을 채용한 충원율은 99.2% 수준으로, 전년(96.2%) 대비 충원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경력직에 대한 수요(29,886명)보다 신입에 대한 수요(81,840명)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신입 충원율(98.8%)이 경력직 인력에 대한 충원율(100.0%)보다 낮게 조사됨
- 구인인원의 경우 타 업종의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 서

비즈니스의 채용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퇴직자로 인한 총원, 신규 수요 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의 2025년 향후 채용예정인원은 6,400명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상·하반기 기 채용 및 채용예정인원은 35,485명으로 나타남
- 최근 세계 경제 위기, 금리인상, 원자재가 상승 등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기업 내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인력채용에 대해 보수적으로 응답한 경향으로 2025년 인력 채용에 대한 수요가 적게 나타남
 - 한편, 산업별 2025년 채용예정인원을 보면,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으로는 전기장비 제조업에서 채용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충남지역의 2023년 훈련 수요량을 보면, 총 84,545명으로 실업자 대상 양성훈련 수요인원 29,044명, 재직자 대상 향상훈련 수요인원 55,501명으로 나타남
- 직종별 최근 3개년 양성훈련의 공급인원(수요인원)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직종에서 양성훈련 공급량이 감소한 가운데,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과 전기공 등은 타 직종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며, 향상훈련 공급 현황을 보면, 실시 및 수요인원 모두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직종별 훈련수요량을 보면, 양성 및 향상 훈련수요량 모두 돌봄서비스직이 높게 나타남
 - 양성훈련 수요량: 돌봄서비스직 > 사회복지·종교직 >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향상훈련 수요량: 돌봄서비스직 > 사회복지·종교직 >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 이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돌봄서비스직 등에서 교육훈련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향상훈련 수요량의 경우, 지역특화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 중 하나인 기계·설치·정비 등의 생산직이 높게 나타남
- 교육분야별로 보면 채용예정인력 수요가 높은 직종이 교육훈련 수요도 또한 높게 나

타나며, 해당 직종들은 교육훈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돌봄서비스직과 사회복지·종교직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양성훈련에서 일상생활기능지원, 사회복지조직운영, 아이돌봄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 NCS에 대한 재교육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음식 서비스직의 경우, 주력산업의 스마트휴먼바이오 산업에 포함된 건강식품과 관련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식음료접객, 식품 품질관리 등과 관련한 양성·향상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기계·설치·정비 생산직의 경우, 탄소중립과 미래차 등의 이슈가 대두되면서 관련하여 자동차 제작, 기계장비설치·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등의 향상훈련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경우, 식품가공 관련 연구개발과 기초유기화학물 제조에 대한 향상훈련 수요량이 증가하여 스마트휴먼바이오산업과 이차전자·첨단화학제조산업과 관련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최근 3년간 향상훈련 수요량 변화는 2024년 55,101명으로 2022년(67,208명) 대비 18.0% 감소하였으며, 종합 건설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훈련공급 분석 방법으로는 충남지역의 인력 및 훈련공급현황 분석을 위하여 하이파이브,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인력 배출과 취업자 수 등을 파악하고, HRD-Net 자료를 활용해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공급 현황 자료를 활용함
- 2023년 기준 충남지역 내 공급된 인력의 수는 11,627명이며, 이중 취업자는 4,890명으로 전체 취업률은 42.1% 수준임
 - 2021년 61.0%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1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배출인력 직종으로는 2021년 대비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제과·제빵원 및 떡 제조원,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이 타 직종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취업률은 전체 취업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 인력과 구인 인력 간의 미스매칭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남

- 2023년 1년간 충남지역 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훈련량은 총 51,512명으로 나타남
 - 실업자계좌제 11,627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1,089명,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6,058명, 사업주지원금훈련 28,838명, 지역산업맞춤형 3,900명
 - 최근 3개년 훈련공급량을 보면, 양성훈련 수요량은 최근 3개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상훈련의 수요량은 최근 3개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6] 향상훈련 공급현황 3개년 전체(사업유형별)

(단위 : 명, %)

구분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21	'22	'23	'21	'22	'23	'21	'22	'23
전 체	47,597	49,706	55,105	44,280	46,670	51,512	93.0	93.9	93.5
양성 훈련									
실업자계좌제	15,341	13,610	12,756	14,074	12,398	11,627	91.7	91.1	91.1
향상 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245	428	1,113	241	426	1,089	98.4	99.5	97.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훈련	5,817	7,057	6,751	5,259	6,383	6,058	90.4	90.4	89.7
사업주지원금훈련	22,685	24,374	30,398	21,367	23,356	28,838	94.2	95.8	94.9
지역산업맞춤형	3,509	4,237	4,087	3,339	4,107	3,900	95.2	96.9	95.4

- 한편, 2023년 기준 유형별 교육훈련기관 현황을 보면 현재 교육훈련기관의 지리적 위치, 교육과정 등이 집중화된 경향이 있음
 - 교육훈련기관은 총 357개로, 그중 천안시에 전체 교육기관의 37.3% 이상이 집적되어있는데, 이는 사업체와 근로자가 가장 많이 집적된 곳으로 필연적인 결과이나, 타 지역 소재의 재직자와 양성훈련 대상자가 지리적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충남지역 교육훈련 유출입 분석 결과, 충남지역 수강자 55,278명 중 충남 외 타 지역 거주자는 38,785명으로, 전체 중 70.2%의 인원이 충남 외 지역에서 유입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전체 지역 유입 훈련 현황(2022년 기준)

(단위 : 명, %)

구분	충남 지역 수강자	충남지역 거주자		충남 외 타지역 거주자(유입)		알 수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55,278	16,469	29.8	38,785	70.2	24
양성훈련	12,756	11,232	88.1	1,512	11.9	12
향상훈련	42,522	5,237	12.3	37,273	87.7	12

- 한편, 충남 거주 교육생 29,135명 중 충남 외 타지역 수강자는 17,502명으로, 전체 중 60.1%의 인원이 외부 교육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전체 지역 유출 훈련 현황(2022년 기준)

(단위 : 명, %)

구분	충남 거주 교육생	충남지역 수강자		충남 외 타지역 수강자(유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29,135	11,633	39.9	17,502	60.1
양성훈련	17,628	6,396	36.3	11,232	63.7
향상훈련	11,507	5,237	45.5	6,270	54.5

- 특히 경영·행정·사무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20~30대의 인력 유출이 심각한 편이므로 지역 내 우수한 스타기업 발굴, 고수준의 교육 개선을 통해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충남지역 거주 재직자의 경우, 54.5%(6,270명)가 타 지역의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재직자 훈련의 경우 온라인 등 원격훈련도 타 지역 교육으로 포함되므로 해석 시 유의해야할 것임

5. 충남지역 교육훈련 공급방향 및 시사점

- 2023년 충남지역 교육훈련에 대해 교육훈련 미스매칭 직종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국 고용직업분류 중분류(2자리) 기준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을 분석함
 - 양성훈련은 훈련수요 및 공급인원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수급차를 조정하며, 이후 양성과정에 대해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성과(취업률), 노동시장의 현황(구인배수), 그리고 전문가 AHP를 통한 업종별 수준별 인력의 중요도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훈련수급 조정을 검토함
 - 향상훈련은 훈련수요 및 공급인원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수급차를 조정하며, 이후 향상과정에 대해 교육 필요성, 교육 성과(수료율), 노동시장의 현황(향후 10년 간 일자리 전망), 그리고 전문가 AHP를 통한 업종별 수준별 인력의 중요도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훈련수급 조정을 검토함
- 양성훈련과정에 대한 교육훈련으로는 교육훈련 확대 직종은 총 21개로,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등으로 나타남

[표 9] 양성훈련 공급방향

구분	분류	직종(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 기준)	
양성훈련	교육 확대 검토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824 용접원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31 전기공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90 제조 단순 종사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표] 양성훈련 공급방향

구분	분류	직종(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 기준)	
양성훈련	교육 축소 검토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027 회계·경리 사무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622 자동차 운전원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303 약사 및 한약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415 디자이너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511 미용 서비스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향상훈련과정에 대한 교육훈련으로는 교육훈련 확대 직종은 총 25개로,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등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교육훈련 확대 직종들은 기존 교육훈련 외 단기적인 교육훈련 확대를 통해 공급인원을 확충하여 지역 산업 내 인력 수요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표 10] 향상훈련 공급방향

구분	분류	직종(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 기준)	
향상훈련	교육 확대 검토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31 전기공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305 영양사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교육 축소 검토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032 금융·보험 사무원	542 경비원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511 미용 서비스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3. 교육훈련 수급 조정 관련 시사점

- 2024년 교육훈련 수급조정 결과를 기반으로 차년도 교육훈련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음
- 훈련수급 조정에서 향후 교육훈련 확대가 필요한 직종을 보면 현재 지역 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및 관련 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산업 관련의 전기전자 장치 및 제품 제조업 등에 해당되는 직종으로 나타남
 - 이들 직종의 경우 지역 내에서 양성 및 향상훈련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지역 내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문가 조사 결과, 주력산업과 관련하여 숙련수준별 인력양성 필요성을 보면 석탄화력에너지 및 첨단금속/철강산업을 제외하고 고급인력에 대한 인력양성 필요성을 높게 평가함

[표 11] 주요 산업별 숙련수준별 인력 필요성

구분	모빌리티 산업	이차전지/ 화학소재	첨단금속 소재/철강	디스플레이 / 반도체	스마트 휴먼바이오	석탄화력 에너지	전문 서비스업	정보 통신업
고급인력	0.505	0.438	0.331	0.495	0.536	0.231	0.568	0.480
중급인력	0.312	0.331	0.336	0.315	0.282	0.344	0.285	0.355
초급인력	0.183	0.230	0.333	0.190	0.182	0.425	0.147	0.165

※ 전문가 조사 AHP를 통한 산업 내 숙련수준별 가중치

- 이는 현재 주력산업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판로 개척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었음
 - 그러나, 현재 기업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는 생산/기능직(초급 및 중급) 인력에 집중되어 있어 전문가와 기업 간 미스매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 기업에서 현재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 및 교육훈련을 공급하되 동시에 기존 중급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한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현재 충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인구구조 개편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성이 높은 정보통신 및 전문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 인력 양성이 필요함
 - 정보통신 관련직의 경우 현재 지역 내 교육훈련이 충분하지 않아, 타 지역에서 교육 훈련에 참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내 관련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지역 내 정보통신 등 전문인력이 배출되어 취업할 수 있는 선도기업 발굴을 통해 산업 환경 기반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기업을 기반으로 정보 통신 관련 인력 수요 확대, 인력양성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기업 중심의 계열구조로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공급 시 대기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인력양성 시 대기업의 기술 수준 및 장비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기술들에 대한 인력 및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ESG, 탄소중립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대기업 및 해외 납품처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직무 수요 발굴 및 이에 대한 인력양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충청남도는 주력산업 위주의 인력 양성을 위해 RISE, 중기부 인력양성 사업 등 앞으로 추진 예정이므로 관련 대학 및 훈련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주력산업에 전문인력을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수급분석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한 인력양성을 통해 충남 내 기업들의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